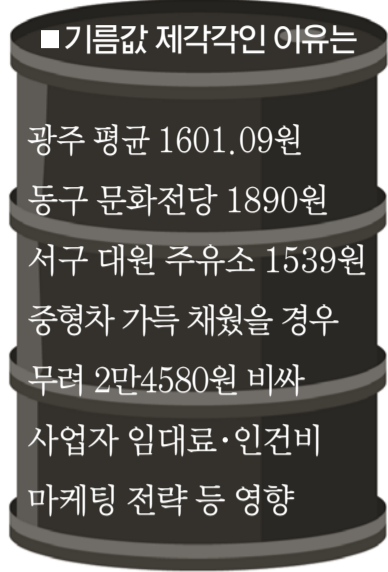


# 같은 광주서 휘발유 8당 최고 351원 차이



(1620원)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광주지역 주유소들이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이날 현재 8당 1601.09원으로 지난 14일부터 16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용 경유는 1402.15원을 기록하며 지난 10일 이후 1400원을 웃돌고 있다. 전남지역 휘발유와 경유도 지난 6월 5일 각각 1600원과 1400원을 돌파한 뒤 연일 오름세를 보이며 이날 현재 1611.49원과 1412.73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지역별, 상표별 기름 값 차이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는 동구 '문화전당주유소'로 이곳에서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가격은 8당 1890원에 달했다. 광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급휘발유 가격과 맞먹는 가격으로 경유도 1690원에 판매돼 지역 평균가보다 비쌌다. 반면, 광주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서구 '대원주유소'로 보통휘발유 가격이 8당 1539원이다. 경유 역시 1339원에 판매되며 휘발유와 경유 모두 광주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했다. 지역 최고가와 최저가 두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 차이는 8당 351원에 달했다.

이들은 연료탱크 용량이 70 l 인 중형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채울 경우 최저가 주유소에선 10만7730원, 최고가 주유소에서는 13만2300이 나온다는 뜻이다. 한번 가득 채울 때 2만4570원 차이로, 한달에 두번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4만9140원 차이가 난다. 각 자치구별 최저가 주유소는 ▲동구 ㈜아승그린주유소(휘발유 1560원·경유 1365원) ▲서구 ㈜대원주유소(1539원·1339원) ▲남구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1549원·1349원) ▲북구 ㈜에코주유소(1543원·1343원) ▲광산구 낙원주유소(1547원·1347원)으로 파악됐다. 최고가 주유소는 ▲동구 문화전당주유소(휘발유 1890원·경유 1690원) ▲서구 치평주유소(1679원·1479원) ▲남구 봉선주유소(1699원·1499원) ▲북구 광주주유소(1799원·1599원) ▲광산구 하남제일·성현주유소(1759원·1439원) 등이었다. 이처럼 지역별, 주유소별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로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에 각자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 지출이 더 많은 주유소의 기름 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유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어 영업지역 내 동종업계의 경쟁과 주민들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고 '영업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인근 지역이라도 각자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최고가 문화전당주유소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3만원 이상 주유할 경우 아메리카노 커피나 생수 등을 제공, 다양한 할인·적립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가인 대원주유소는 알뜰주유소로 할인·적립혜택과 사은행사가 없다. 여기에 상표별로도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정유업체 선발주자인 SK에너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곳에 주유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체로 땅값과 임대료가 높아 판매가격도 높게 형성된다. 휘발주자인 에스오일 등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영업전략을 구사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일괄 입찰을 통해 공동구매 가격이 낮다는 게 주유소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세차, 정비, 편의점 등 고객모집을 위한 부가서비스와 셀프와 풀서비스 등 서비스 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 달빛벤처 '루바니' 선정

호남·영남 달빛동맹 교류회 판로 개척·생태계 조성 지원

광주지역 중소기업 '루바니'가 광주·대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선도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26일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회장 김명술)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4일 대구에서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벤처기업 협회'를 열고 광주·영남 달빛동맹 교류회를 열고 광주의 루바니를 혁신선도벤처기업 2호로 선정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처음으로 '달빛동맹 교류회'를 열고 지역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선도벤처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지난달 대구지역 벤처기업 ㈜케이엠씨를 첫 혁신선도벤처기업으로 선정 한 이후 광주지역 중소기업으로 루바니를 선정했다. 루바니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산업부장관표창(2014년)과 중소기업청 으뜸제품 선정(2014년), 고용우수기업 선정(2016년) 등 회사와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벤처협회는 해당 기업의 마케팅과 판로확보 등을 지원해 스타트업으로 육성, 지역 내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김명술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지역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져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지역 음식·숙박업 5년 생존율 18%...콘텐츠 개발 시급"

산업연구원 보고서...제조업 보다 20%P 낮아 관광수요 적어 폐업 위험 높아...의료관광 등 대책 세워야

음식·숙박업체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 이벤트 개발, 의료관광, 마이스산업 발전방안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의 부족한 숙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순화 연구원 등이 내놓은 '관광숙박업의 생존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음식 및 숙박업 5년 생존율(2015년 기준)은 17.9%로, 같은 기간 제조업 생존율 38.4%보다 20%포인트 가량 낮았다. 1년 생존율은 59.5%로 제조업의 70.1%보다 10.6%포인트 낮았고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관광숙박업체는 종사자가 1~4명인 영세업체가 91.7%로 대부분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12.7%)과 경기도(14.8%) 등 수도권에 전체 숙박업체의 27.5%가 밀집되는 등 지역적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

역 내 동종업체 수, 종사자 수, 지역 간 양극화 현상 등이 꼽혔다. 서울의 경우 개별 관광객 증가와 실속형

관광행태가 늘면서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낮은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 문제로 관광객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면, 서울·부산 등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관광수요 자체가 적어 업체들의 폐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부족한 숙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특화 이벤트, 의료관광, 마이스산업 발전방안 등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이순화 연구원은 "지역 내 소규모 숙박시설들을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대형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소규모 업체들의 영세성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청소년 장학금 600만원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정찬민)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공장 교육센터 대강당에서 파트장협의회(회장 허운수) 주관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추천을 받아 기아차 광주공장 청소년 장학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 담합 고발 누구나...사업자 과징금 2배

공정거래법 38년만에 개정...전속 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완전히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간 독점하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마련된다.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고발도 누구나 가능해지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1980년 제정된 이후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지체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으로 나뉘며 공정위의 독립 권한을 다른 기관 등과 나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일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개정안은 전체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며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찜짜미 등 '경쟁담합'에 대한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기업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규정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나서지 않으면 행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또다른 권한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담합의 경우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 등 2배로 늘렸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견청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도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등 요건을 낮추는 한편,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